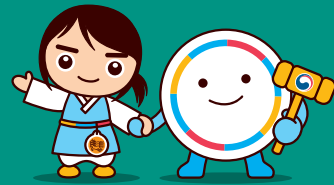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WINTER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5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언제나 청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김남일(강원도 강릉시)

권익 빅데이터 27년간 현장직 일을 하면서도 10월달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집중력과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협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상식을 꼭 지켜서, 가정과 회사의 행복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권익을 빛는 사람들 열정 가득한 신입직원 두 분의 모습에서 풋풋한 도전정신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쉼 없이 성장해서 능숙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입사 축하드립니다.

이훈석(경상북도 포항시)

권익 새로고침 기사를 읽고 나서 '정말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사례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이러한 고충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10주년을 맞이한 ○○○○○은 2012년 10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여는 청렴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개원하여, 200만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알리고 있다.

지난호 정답

규제혁신

퀴즈 정답자

김경숙(경기도 성남시)

이성옥(전라남도 순천시)

김병운(부산광역시 금정구)

최성열(충청북도 청주시)

김재윤(서울특별시 성북구)

황복희(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철수(경기도 포천시)

※ 우편엽서에 연락처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유선 문의(044-200-7081)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ACRC NEWSLETTER

VOL.75



국민을 위한

04 권익 포커스 ①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06 권익 포커스 ②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으로 소통하다

08 청렴의 길, 국민권익

신뢰받는 정부, 청렴한 대한민국 만드는 부패방지 정책

14 권익 다시보기

UN 세계 반부패의 날, 2022년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

18 권익 빅데이터

2022년 11월 민원동향

24 ACRC 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이 만드는

27 권익 새로고침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32 권익 활용하기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36 국민생각함

충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38 권익 TOON

국가유공자이자,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40 청렴 콘텐츠

커피 한잔

국민과 함께 읽는

44 권익 나들이

그해 겨울, 그때 그 시절 '강릉'

50 권익 비전

국민권익 채널 핫클립

52 권익 스크린

깨끗한 사회를 위한 청렴 한 스펀

54 트렌드 이슈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의 삶

56 생활 더하기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을 피해라!

58 권익 게시판

정부합동민원센터 안내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지난 2022년 1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고충 해결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일상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애로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눴다. 특히,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읍면동을 찾아가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활동 및 상시 홍보활동 등의 우수 운영사례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의 우수 민원 처리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령·지침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출산·양육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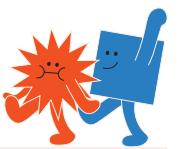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기능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④ 그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상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식지 '시민권익' 발간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뉴스레터

시민권익



2023년 1월,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반기별 운영 현황과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뉴스레터 「시민권익」을 창간합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70곳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익」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기대합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뉴스레터 「시민권익」 바로가기



지난 11월, 청렴연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했다. 청렴연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0여 명을 초청해 청렴 강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으로 소통하다

청렴연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10년, 대내외로 청렴을 흠부린 시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여는 청렴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문을 열었다. 그동안 200만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매년 청렴을 주제로 한 수필·시·일러스트·영상·노래 등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전수하고 있다.

함께 모여 되돌아본 지난날

지난 11월 10일, 청렴연수원 본관동에서 청렴연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전현희 위원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해 청주시 수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먼저, 지난 10년간 청렴연수원이 걸어온 길을 소개했으며, 뒤이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 지원으로 조성된 '청렴선비공원' 준공식을 진행했다. 청렴선비공원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청주시 수곡동 일대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준공식과 함께 풍물놀이 공연 등의 행사 진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인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0여 명을 초청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렴 6덕목(정직·배려·약속·절제·공정·책임) 강의와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〇〇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①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②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뢰받는 정부, 청렴한 대한민국 만드는 부패방지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청렴 교육·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악은 근절되고 대한민국 곳곳에 부패의 고리는 끊어진다.
대한민국을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을 이곳에 담는다.

01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반부패·청렴 정책 주요 기능

1 # 반부패·청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운영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 파트너십 활성화

2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3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견인

-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을 조사하고,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 견인
- 청렴도 하위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지원

4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법령·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개선 권고
-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등 추진

5 #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 청렴연수원 운영

-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공직자 청렴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민간부문 청렴 문화 확산 기여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연수원

INFO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국민 참여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발리 주요 20개국(G20) 모범사례로 소개

‘국민 참여 및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모범사례집’이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이 사례집은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됐다. 모범사례집에는 부패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해 온 다양한 사례가 제시돼 있다.

0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적용 범위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금지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신고의무 :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 사례금 상한액 :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변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 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 원(1시간 기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공직자 제2조 제2호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이해충돌방지 세부 행위기준



신고 및 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 행위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② 가족 채용 제한
-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수익자 제재



부정이익의 환수(이자포함)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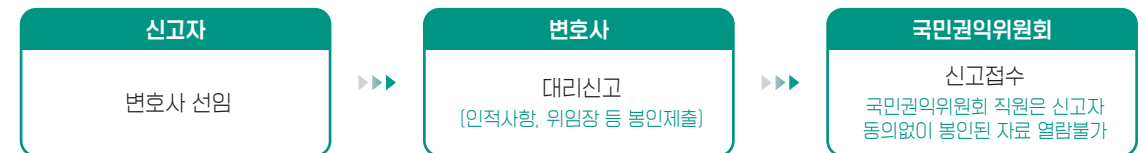
03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공익·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 보상금 지급**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지자체 등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금 지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가능

INFO 부패·공익신고 대상

- ① **부패행위**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②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③ **복자·보조금 부정수급** :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오지급, 허위 청구, 과다 청구하는 행위
- ⑤ **청탁금지법 위반**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⑥ **채용비리** : 법령·지침·정관·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⑦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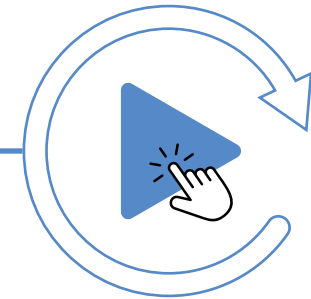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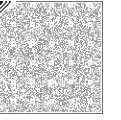
12월 9일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목표로,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90여 개국이 2003년 12월 9일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반부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되새겼던
그날을 이곳에 조명해본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

2022년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 개최
2022. 12. 07. ~ 12. 09.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2022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등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많은 국민의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Replay

펼쳐서 다시보기 ↓

12월 7일

- 청렴·공정 북콘서트

12월 8일

-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12월 9일

-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 청렴 Live: 이해충돌방지법 특집편

11월 21일 ~ 12월 9일

- 청렴송 SNS 챌린지

12월 9일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목표로,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90여 개국이 2003년 12월 9일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반부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되새겼던
그날을 이곳에 조명해본다.

2022. 12. 07. ~ 12. 09.

UN 세계 반부패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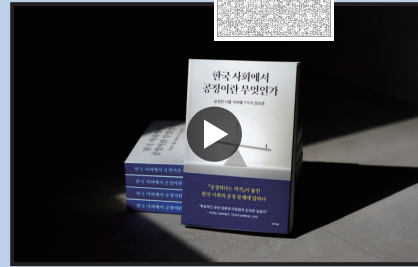
2022년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 개최

DAY 1

12.07.

청렴·공정 북콘서트

먼저 7일에는 청렴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청렴·공정 북콘서트'를 '권익비전'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북콘서트는 총 2부작으로 1부에서는 공정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2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DAY 2

12.08.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8일 오후에는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907편의 출품작 중 50편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98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DAY 3

12.09.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 공익신고의 날을 선포했다. 2019년 제1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이후 매년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여러 제도를 소개하는 등 공익신고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익신고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청렴 Live: 이해충돌방지법 특집편

'청렴 Live'는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반부패주간에는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 Live를 이해충돌방지법 특집으로 구성하여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이해충돌을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뮤지컬 형태로 표현한 '처음처럼'을 선보였다.

청렴송 SNS 챌린지

지난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인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를 함께 불러보는 '청렴송 SNS 챌린지' 캠페인도 진행했다.



〇〇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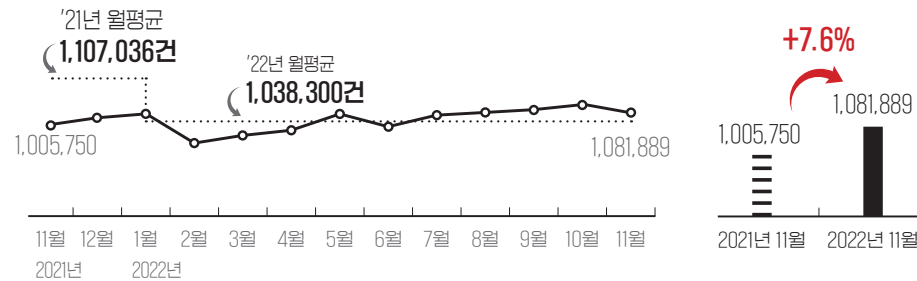
〇〇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11월 민원동향'을 살펴며, 국민이 바라는 내일을 그려본다.

- **민원 추이**
- + 2022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1,889건
 - + 전월(1,108,433건) 대비 2.4% 감소
 - + 전년 동월(1,005,750건) 대비 7.6% 증가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 12. 1. 13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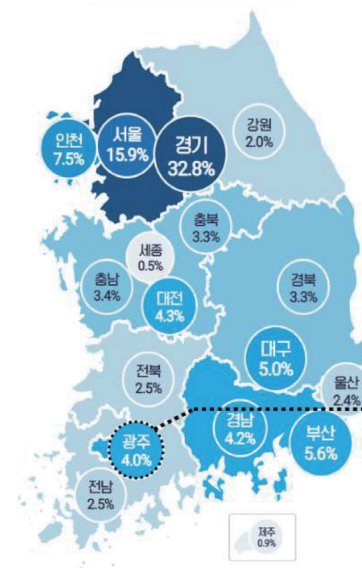


- **신청인 현황**
- + 연령별로는 40대(33.4%) 및 30대(26.9%), 성별로는 남성(69.2%)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1.7%), 30대 남성(18.3%), 50대 남성(12.8%) 등의 순
 -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28,139건 대상

연령별	20대 이하	13.6%	성별	남성	69.2%	연령별·성별	40대 남성	21.7%
	30대	26.9%		여성	30.8%		30대 남성	18.3%
	40대	33.4%					50대 남성	12.8%
	50대	17.6%					40대 여성	11.7%
	60대 이상	8.5%					20대 이하 남성	10.1%

- **지역별 현황**
- + 경기 32.8%(301,939건), 서울 15.9%(146,267건), 인천 7.5%(68,940건), 부산 5.6%(51,140건), 대구 5.0%(45,836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6.2% 차지
 - +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광주광역시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1% ↑), 광주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북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0,655건)

11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광주광역시 주요 민원 키워드

방화지시등 미점등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친환경차출전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청소년이용불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인도 주차
자동차관리법 불법적치물
소방차전용구역
개입물통금분류

광주광역시 민원발생 현황



※ 신청지역이 확인된 920,306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 분야별 현황

-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1.0%)가 가장 많고, 교통(8.3%), 도로(7.8%), 행정안전(7.0%), 환경(4.3%), 주택건축(4.0%), 산업통상(2.4%) 분야 등의 순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문화	보건
51.0%	8.3%	7.8%	7.0%	4.3%	4.0%	2.4%	1.8%	1.6%
교육	수자원	방송통신	도시	해양수산	과학기술	노동	재정	관광
1.3%	1.3%	1.0%	0.8%	0.8%	0.7%	0.7%	0.7%	0.6%
법무	체육	국방	농림축산	사법	복지	세무	외무통일	우정
0.6%	0.6%	0.6%	0.5%	0.5%	0.4%	0.4%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45,661건 대상

증가율 상위 분야

※ 도시개발 관련 각종 요구 및 토지 보상에 대한 이의 등 도시 분야 증가



도시
32.3% ▲



산업통상
29.3% ▲



재정
16.8% ▲



보건
10.8% ▲



과학기술
10.2% ▲

감소율 상위 분야



문화
58.9% ▼



체육
43.5% ▼



관광
34.7% ▼



세무
13.4% ▼



농림축산
8.9% ▼

■ 주요
민원키워드

+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공공분양 아파트 등

+ 버스 노선, 서울 접근성, 신도시 주민, 교통안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관련

■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조속 추진 요청,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등 '교통환경' 관련

■ 공공분양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 공원과 연결된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등 '아파트 및 주거환경' 관련

■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 등 '게임' 관련

■ 검단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등 '건축' 관련

Top 30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서울 접근성	21	게임물 등급분류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	수도권 서북부지역	22	청소년 이용불가
3	친환경차 충전구역	13	서울 중심	23	마을버스 조정
4	역주행 발생	14	인구 밀집도	24	공공분양 아파트
5	위례 주민	15	복합쇼핑몰 계획	25	부출입구 개설
6	교통법규 위반	16	신도시 주민	26	경의중앙선 향동역
7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17	위례신사선 녹장	27	과대료 처분
8	사업정상 추진	18	다산 ○○아파트	28	교통안전
9	버스노선	19	어린이 보호구역	29	지하 통합개발
10	정차역 환승센터	20	마포구 소각장	30	중앙선 침범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체육관 건립, 한강공원 접근성 등 14개

정책개선, 아이디어 발굴!
제2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 & 난방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등 국민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에보 발령

* 국제 에너지(천연가스, 원유 등)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 급격히 상승
-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22년에만 3차례 인상되어 연 초 대비 약 38% 급등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 초 대비 약 46% 폭등('22.12.1. 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1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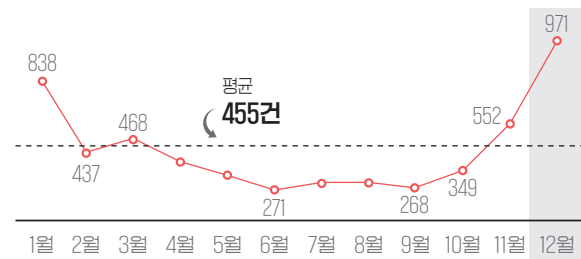
최근 3년 11개월간('19.1월~'22.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및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0,85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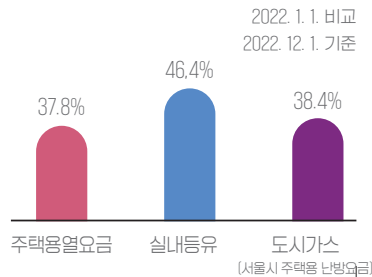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 발생

12월 발생 민원은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3년 월평균 기준)

['19년 1월 ~ '21년 12월 월평균 민원 추이]



[연초 대비 난방에너지별 요금 증가율]



2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4.9%)이 여성(35.1%) 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9.6%), 30대(27.3%), 50대 (19.0%), 20대(13.4%), 60대(7.7%)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1,569건(전체의 55.5%),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0,859건(전체의 52.1%)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7.0%), 서울(16.0%), 인천(6.8%), 강원(4.5%)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8,700건(전체의 89.7%)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9.9%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3.9%, 공공기관 11.0%, 시도교육청 5.1% 등의 순

4 민원 사례

[도로결빙 등 한파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청]

-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중에 오수가 도로에 유입되어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22.1월,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우리 동네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로 수도관 동파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 바랍니다. ('21년 12월, 강원도 양구군)
- 제설작업이 늦어져 급경사 구간에 사고가 많았는데, 내일 새벽에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 전 빠른 제설작업 부탁드립니다. ('21년 12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개선 요청]

-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떨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주변에 추위 대피소를 설치해주세요. ('22년 11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 겨울만 되면 공중화장실의 물이 얼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이 얼면 폐쇄만 하고 몇 년 동안 개선이 없는데, 공중화장실 내 난방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 주택가 도로의 경사가 가팔라 눈이 내리면 미끄러운 빙판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고령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해주세요. ('22년 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 관련 지원 요청]

- 중증장애를 갖고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예전에 받던 후원이 모두 끊겨서 겨울나기가 힘든데, 연탄이나 기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하는데, LPG는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 올해 76세인 뇌병변장애 5급 장기요양인정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으로 구별해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우대 혜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등급에 차별 두지 말고 공공요금 인하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CRC NEWS

202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와 정책 이야기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지난 12월 8일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 수상작 총 50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총 4,9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청렴연수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 향상 및 정착을 위해 매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해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분야별 10점씩 총 50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청렴연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을 공직자 및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튜브·블로그·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하고, 시나리오의 연극 등 2차 창작물로 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민생각함 우수생각’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국민생각함 우수생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에는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라는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은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가 장애아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우수상에는 ▲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 편의를 위해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권고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생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수출국 1호인 튀니지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수출국 1호인 튀니지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튀니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가를 파견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부터 기술과 정보 그리고 운영 경험 전수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튀니지 정부의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용기관 확대 및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등 튀니지 국민신문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튀니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전자정부 브랜드”라며, “튀니지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도 국민신문고를 널리 수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위원장, “반부패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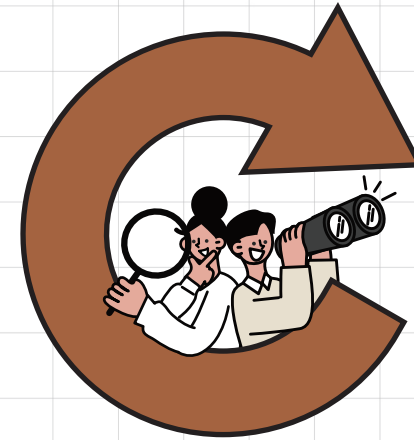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윤경ESG포럼에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ESG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ESG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K-CP를 소개했다. K-CP는 공기업 등이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을 말하며,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여 현재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1회 문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지난 12월 2일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준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제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①
소음기준에 준수하는
소음저감 대책 수립·시행 시정권고
- ②
횡단보도 경계석 설치기준 개선 요구



새로고침

국민의 목소리 권익의 길이 되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답하기 위한 다양한 고충민원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부당한 처우의 새로고침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

소음기준에 준수하는

소음저감 대책 수립·시행 시정권고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민원인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인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AA, 아파트AB, 아파트AC, 아파트AD, 아파트AE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질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〇〇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방음벽, 방음 터널 등의 실질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실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수행기관은 '복층 저소음 포장'과 차량 속도제한 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소음저감대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의 소음환경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 이하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사실과 달랐다.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소음은 주간 69.1dB, 야간 64.1dB로, 그들이 말한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택지개발사업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준공 후에도 사업수행기관에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단위: LeqdB(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 민원 발생 지역 '가' 및 '나'의 소음환경기준

시사점

민원은 양측의 엇갈린 입장에서 시작된다. 해당 사례 역시, 민원 신청인(아파트 입주민)과 피신청인(수행기관)의 의견대립으로 발생한 민원으로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실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 확인으로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

횡단보도 경계석
설치기준 개선 요구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의 설치기준을 개선해주세요!

권익 새로운 고집

인천광역시시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구간의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부분 턱낮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천광역시시는 설치기준에 따른 적법한 시공이었음을 되풀이하며,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부분 턱낮춤은 경계 석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경사로의 폭이 높고 좁아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의 부분 턱낮춤 설치 기준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한 타당성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보행환경 정비지침'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로안전 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대해 개선할 점들을 찾아냈다. 먼저 2013년 3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도입된 부분 턱낮춤 폭은 10년 전 설치기준으로, 변화된 현재의 보행환경(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노인 전동차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다양화, 전기자전거·전통킥보드 등 원동장치의 대중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협소한 턱낮춤 설치기준(폭 1.0 ~ 1.5m 범위 내)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게 '보행환경 지침'의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규정에 제시된, 경계석의 턱낮춤 폭 상한(1.5m) 기준 폐지 등 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횡단보도 경계석 전체·부분 턱낮춤 장단점

전체 턱낮춤

- 장점** 보행자의 횡단보도에서 인도로의 이동이 편리함
- 단점** 차량의 인도진입 우려, 주차방지턱 미설치 시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방지턱이 장애인 등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우려, 유지관리 비용 발생

부분 턱낮춤

- 장점** 차량의 인도진입 방지, 안전사고 미연 방지 가능
- 단점** 보행자의 횡단보도에서 인도로의 이동 불편, 보행기 사용 및 이동 불편 초래

시사점

시대적 흐름에 걸맞지 않은 보행환경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 면밀한 타당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지침을 바로잡은 사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편·부담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규제혁신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불필요한 행정규제,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다

—
규제혁신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은 억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규제의
점검·정비를 통해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개선,
고충민원, 규제심판, 적극행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국민권익 겨울호>를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규제혁신 중
우수사례를 이곳에 소개한다.

- PART 1 국민불편 유발 규제 완화
- PART 2 중소기업 부담 완화
- PART 3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

PART 1

국민불편 유발 규제 완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반환 및
감면요건 완화

기존

수수료 징수·반환 결제수단이 한정적이고 기납부 수수료 신청변경·취소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개선

수수료 결제수단을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청변경·취소 외 지자체 귀책, 과오납의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 마련을 권고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가능

민원

국유지 관리청은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가스 배관 설치가 안 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함

개선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인 국유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

PART 2

중소기업 부담 완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선제적 해소

기존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계약제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인 기업으로부터 예외 없이 받도록 운영

개선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민원

유동성 위기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환매가격 산정방식(기준)이 불명확

개선

환매가격 산정시 가치평가 비교 대상 자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조건에 환매가격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환매가격 산정방식의 개선을 권고

PART 3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민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 등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에 편중되어 있고 방문 신청기관은 77개소에 불과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에 제약 발생

개선

재난지원금 등의 방문 신청기관 수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전화, 우편 안내 강화 등 사전등록 시 신청 편의를 제공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권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적용기준)
사각지대 적극 개선

청구

코로나19로 인한 커피전문점의 매출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영업 중단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함

Tip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규제건의'란과 지방 '규제개혁신문고'란을 통해 규제에 관한 건의 사항을 신청해주세요.

01

국민, 기업 누구나! 규제건의

국민, 기업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02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지방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입니다.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닌 경우 규제건의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국민의견 조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생활이 개선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 목소리를 녹여낸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을 소개한다.



추진배경

매년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나면서 살인, 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흡한 층간소음 기준으로 소음측정 실효성이 낮고, 상담인력 부족 및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 간 갈등이 증폭된다. 이에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민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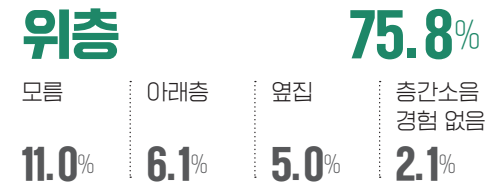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과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설문조사 결과

기간: 2022. 08. 09. ~ 2022. 08. 22. 총 1,976명

층간소음의 주된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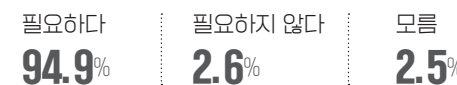
현장조사·소음측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 등으로 확대



야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거부 또는 악의적 소음유발에 대한 제재 필요



바닥구조성능 미달 시 하자로 인정할 필요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대한 주요 의견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과 이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건설사 시공부터 공동주택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점검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주요 개선내용



층간소음 기준 강화

- WHO의 국제기준과 층간소음 주 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인 층간소음 기준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과 제재 기준 마련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 조정 강화하고자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 조정기한 등 절차 구체화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112 신고접수 시 출동기준을 명확히 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개정
- 야간(22:00 ~ 06:00)에 휴식·수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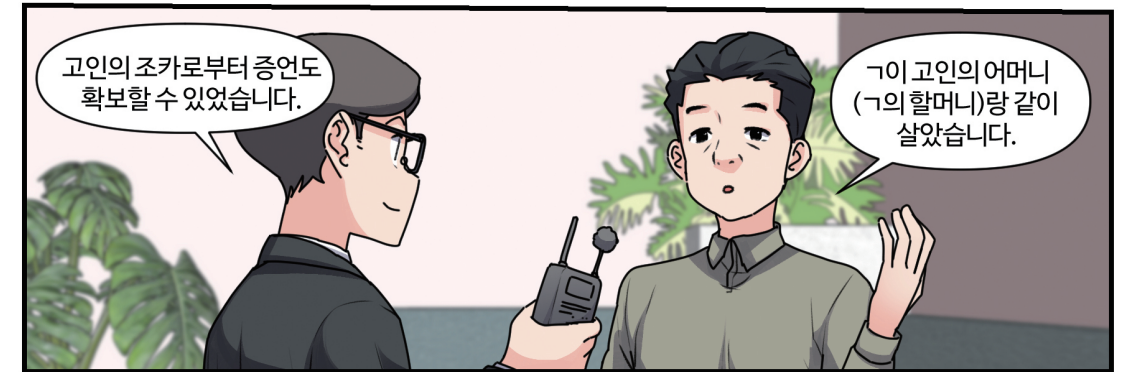
바닥 성능검사 기준 강화 및 하자보수 도입

- 공동주택 세대 내 바닥성능기준을 현 수준 평균치보다 상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바닥구조 기준미달을 하자판정 기준에 포함하고, 일정기간(3년 이상)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설정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개정
- 소음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주세대에 제공하는 IoT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 소요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3」 개정

국가유공자이자,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6]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임에도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등록이 거부된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를 소개한다.



커피 한잔

흔히 사과 상자에 담긴 돈뭉치만 금품으로
생각하지만, 커피 한 잔도 금품이 되어
우리의 몫을 더럽힐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마지못해 얻어 마시는 커피 한잔,
음료수 한 병이 족쇄가 되어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R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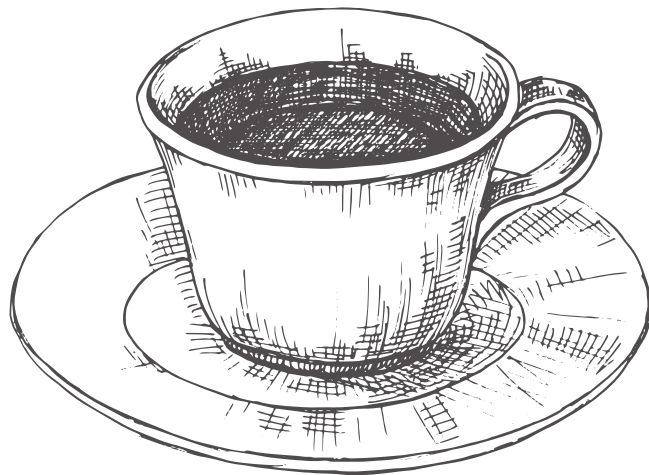
연공흡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필 분야 장려상

○○

커피 한잔을 얻어 마셨다면 감사관 앞에서
고개를 킁킁이 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통차 한 잔 얻어먹는 대신 내가 커피믹스 한잔 타주길 참 잘했다.

♀♀



처음에는 식사를 함께하자고 했다.
팸투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된 직후였다. H사의 대표가
일 년 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며
레스토랑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어쩌다가 그 사업을 중간에 말긴 했지만,
사업의 효과성도 의문이었고 H사의
일 처리도 영 맘에 들지 않았다.
정산 서류도 미비한 점이 많아
몇 번을 보완하게 한 후 마감일
임박해서 준공 처리를 해주었다.
통장에 사업비가 입금되니
인사치레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식사 제의를 거절하자 차라도
한잔하자며 근처에 있는
전통찻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님과의 식사나 커피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H사의 대표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커피는 내가 대접했다.
준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한잔 타서 건네주었다.



관광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팸투어 사업을 맡았을 때는
'팸투어'의 뜻도 몰랐다.
사전을 찾아보고 전임자와
팀장에게서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서야 어렵듯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광이라는 것은 본인의 경비로 여행을
하는 것인데 팸투어는 우리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공짜로 관광시켜 주는
사업이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되어 21세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가 근무했던 기관이
그 선도에 있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팸투어 사업으로, 우리 기관의 부담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많은 중국인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서 해외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고
효과도 크지 않아 내부 논의를 거쳐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다음 해에
폐지했다. H사에 비상이 걸렸다.
팜투어 사업을 부활시키려고
집요하게 찾아왔다.

H사와는 수년째 용역계약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해에도
내가 업무를 받았을 때 절반은 완료된
상태였다. 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C 주무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연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사업 중에 석연치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섭외비였다. 우리 예산으로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 일체를
주는 것 외에 따로 섭외비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고위 간부를 초청하기 위해
특정 단체에 섭외를 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내에서 이동하고 숙박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였다.

내가 전통차 한잔이라도
받아 마셨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커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않았기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작고,
국내 체재비 외에 섭외비나 중국 내
소요 경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업이 폐지되고 2년이 지나
팜투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원에서
팜투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부서에서
팜투어 사업을 폐지하자,
오랫동안 이 사업을 담당했던
나의 전임자 C 주무관이 자신의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획해서 다시 H사와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C 주무관과 H사의 비리를 조사하던
감사원에서 과거에 돌이 손잡고 추진했던
사업 전체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었다.
별도로 마련된 감사장에 한 달 내내
불려 나가 감사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했던 팜투어 사업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회계서류도 모두 제출했다.
전임자 C 주무관이 H사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렸고 금품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감사관은 나도 모든 걸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고
더구나 H사로부터 금품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다.

“커피 한잔은 얻어 마셨을 거 아녜요?”
“아닙니다. 커피 한 모금도 얻어 마신 적 없습니다.”

정말로 물 한 모금 얻어먹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감사관은
얼굴에 냉소를 띠었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한통속이면서 잡아떼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회계서류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과 근무상황부를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작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눈곱만큼도
걸릴 것이 없어서 마음은 편안했다.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감사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이다. 반면 나도 모르고 팀장과 과장도
모르고 있던 C 주무관의 행적이 드러났다.
그는 수십 번이나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경비 중 일부는 H사에서 제공했고 더러는
휴가나 조퇴를 받지 않고 가기도 했다.
섭외비나 중국 내 영수증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가짜 영수증이 상당수 나왔다.
결국 그는 파면이라는 최악의 징계에
더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용역 업체로부터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면 내가 팜투어 사업을
폐지하자고 부서장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커피 한잔을 얻어 마셨다면
감사관 앞에서 고개를 꺾고
뚝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통차 한잔 얻어먹는 대신
내가 커피믹스 한잔 타주길 참 잘했다.

강릉에서, 과거의 흔적을 마주하다

강릉에 한 계절만 간다면, 겨울을 꿈꿨다. 경포호 돌레에 자리한 고택과 정자들의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호반 산책로를 걷다 보면 경포대, 활래정, 해운정, 초당마을 등을 우연처럼 만난다. 강릉 겨울 바다의 감성은 또 어떨고. 경포해변에서 맞이하는 신년 일출, 항구를 품은 주문진에서 어시장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강릉의 매력은 끝이 없다.

글·사진 김혜영 여행작가



네번째 나들이

그해 겨울, 그때 그 시절 '강릉'

경포호 둘레에 세워진 옛 정자들

강릉에서 경포호를 가장 좋아한다.
강릉 사람도 비슷한 생각인지, 경포호
둘레에 누정(누각과 정자)을 13개나
세웠다. 정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치가 좋다는 얘기. 고려 말에 지은
경포대부터 해운정, 금란정, 경호정,
상영정, 활래정, 2016년에 복원한
환선정까지 건립 시기도 다양하다.

옛사람들이 누각에 앉아 은쟁반 같은
경포호를 바라보며 풍류를 즐겼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호반길을 천천히
걸으며 징검다리 건너듯 누정을
한 곳씩 들른다.

지금은 경포호 둘레가 4km에
불과하지만, 12km에 달했던 옛날에는
누정 턱밑에서 호숫물이 찰랑댔다.
활래정이 있는 선교장 앞까지 배가
드나들고, 방해정 대청마루에서
낙시질했다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다.



13개 누정 중 경포대가
가장 웅장하고 유명하지만,
내 마음속 1등은 활래정이다.

경포대는 호방하고, 활래정은
우아하다. 활래정이 있는 곳은 조선
후기 강릉 만석꾼 이내번이 지은
선교장의 연못가. 연못에 두 다리를
걸치고, 날개 같은 처마를 한껏 펼친
모습이 기품 있다.

당대 대표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규원 정병조, 해강 김규진 등이 이
모습에 반해 선교장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활래정에 이들이 남긴
화려한 편액이 여섯 개나 걸렸다.



활래정 뒤편으로 '선교장'
현판을 단 솟을대문이 보인다.
솟을대문 안 열두 대문 사이에 안채,
사랑채인 열화당, 별당, 행랑채 등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궁궐을 축소해 놓은 듯한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옛날에는 선교장
주인장이 손님과 담소를 나눠보고 인품과
학식에 맞는 처소를 정해주었다고 한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 품격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한밤중에 창호문을 열고 마당을
살짝 내다보니, 수정 같은 보름달
빛이 활래정을 비추고,
선교장 뒤편 솔숲에 별이 총총 떴다.



허균·허난설헌 남매가 예술적 재능을 키운 초당마을

경포 해변에서 일출을 본 뒤에는 습관적으로
경포호 남쪽 호숫가 초당마을로 간다. 마을
토박이들이 대를 이어 만드는 초당두부를
먹기 위해서다. 20여 곳의 초당두부
전문점들이 매일 새벽 2~4시부터 콩을
갈고 가마솥에 삶아, 초당두부의 창시자
초당 허엽의 비법대로 두부를 만든다. 아침
7시쯤이면 두부가 완성된다. 갓 만들어
따끈하고 고소한 두부가 가장 맛이 좋다.



조선 중기 문신 허엽은 오늘날
초당두부로 유명해졌지만, 알고 보면
뛰어난 문장이 허균, 허난설헌 남매의
아버지였다. 허씨 남매는 초당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허엽 가족이 살았던 곳은 호숫가 솔숲 옆
'강릉 초당동 고택' 자리. 고택 안채에서
마주한 영정 속 허난설헌은 그녀의
호처럼 난초의 청초함과 눈의 깨끗함을
지녔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천재성을
드러낸 시인이었지만,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 때문에 요절하고 말았다.

허균이 누이의 유작을 모아 '난설헌집'을
간행한 뒤에야 그녀의 시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봤다.

허씨 남매의 문학 작품이 고택 맞은편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서 전시돼
있다. 남매가 시대를 잘못 만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삶이 애잔하다.



취라기 시대 기암괴석 소돌아들바위

강릉 북쪽에 자리한 주문진은 솔숲이
우거진 주문진해변과 싱싱한 수산물을
사철 볼 수 있는 주문진항을 품었다.
부둣가 어시장에서 도루묵, 양미리,
곰치, 홍게 등 겨울 제철 해산물을
맛보고, 솔숲과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문진해변 남쪽 소돌해변 끝자락에는
백사장 대신 넓고 평평한 파식대가
발달했다. 물 위로 볼 달린 바위가
우뚇 솟았는데, 검고 각진 바위가 힘센
수소를 닮아 '소바위'라 불린다.
내 눈엔 코볼소처럼 보인다.
옛날 한 노부부가 소바위에
백일기도한 뒤 아들을 얻었다고 하여
'아들바위'라고도 부른다.



아들바위와 마주 선 또 하나의
거대한 바위는 코끼리 두 마리가
큰 귀를 펼럭이며 걸어가는 것
같다. 바위 표면이 코끼리 가죽처럼
회색빛이고, 거칠며 구멍이 숭숭
뚫렸다. 이 기암괴석들은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 때
지각 변동으로 바다에서 솟아오른
것. 지금도 세찬 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태가 변해가는 중이다.
수천 년 뒤에는 무슨
바위로 불릴지 궁금하다.



'갬성' 넘치는 기념사진을
찍고 싶을 땐 주문진 최북단
향호해변이 제격이다.
이곳에 BTS 앨범 재킷을 촬영했던
일명 'BTS 버스정류장'이 있다.
푸른 바다가 버스정류장의 배경이
되어주니, 인생 사진 명소로
소문날 만하다. 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누구나 먼 길
떠나온 여행자가 된다.

#첫 번째 영상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드라마 에피소드1

2022년 5월부터 적용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들어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이해충돌방지법의 더 쉽고 자세한
이해를 위해 해당 영상은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주제로 드라마
에피소드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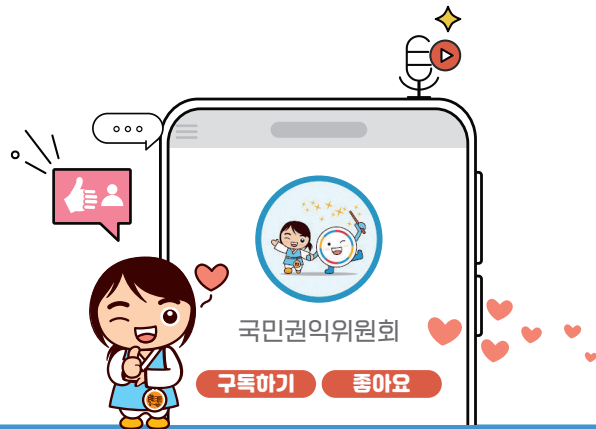
LIVE



국민권익 채널 핫클립 Best3

모바일로
'청렴'을
재생하세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사례 등을 엿볼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시도와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국민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튜브 핫클립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공익신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8월간영 수혈검역 의혹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러 가기

#두 번째 영상

세상을 바꾼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알려드려요~

우리 사회는 불법행위 및 부패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의
용기로 더욱 투명해진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개 영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빠르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익한 정보!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아요!

고민 해결!!

영상
보러 가기

#세 번째 영상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부정부패'는 당장은 작아 보어도
쌓이다 보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에서는 부정부패로 인해 망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며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낸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영상은
주제별 시리즈로 게재된다.

영상
보러 가기



아메리칸 갱스터

감독 리들리 스콧

출 연 덴젤 워싱턴, 러셀 크로우 등

장 르 범죄, 드라마, 미국

줄거리 경찰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때에 유일하게 소신을 지키는 리치 로버츠 형사는 할렘가의 마약 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 수사반을 결성한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원점에서 맴돌고 마약 조직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블루 매직'이라는 고순도 마약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리치는 할렘 암흑가 두목의 존재를 감지하는데...

Point 청렴한 경찰이 척결하는 부패



히든 피커스

감독 데오도르 멜피

출 연 타라지 P. 헨슨, 자넬 모네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NASA 최초의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된 그녀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게 되고, 해결방법은 오직 하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것뿐인데...

Point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청렴

깨끗한 사회를 위한

한 스푼

각종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청렴이 절실하다. 그러나 소소한 거짓말과 작은 욕심으로 청렴은 쉽게 무너진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정직함과 공정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가 담긴 영화를 소개한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감독 이종필

출 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모인 입사 8년 차 동기인 여직원들.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 이자영은 정유나, 심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세 친구는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Point 갑질과 부조리를 막는 내부고발



제보자

감독 임순례

출 연 박해일, 유연석, 이경영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이장환 박사의 연구 결과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민철 PD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얼마 전까지 이장환 박사와 함께 연구하던 관계자로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줄기세포 실험 과정에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는데...

Point 진실을 향한 외로운 투쟁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종필 감독과의 인터뷰가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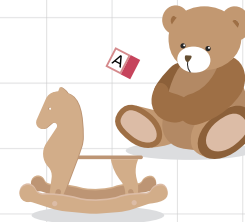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의 삶

참고서적 트렌드 코리아 2023

어른이 되기를 한껏 늦추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장난감을 모으고,
외모를 가꿔 젊어 보이게
하거나 아이처럼 쉽고 재밌게
놀이를 즐긴다. 마치 동화책
속 어린아이로 영원히 사는
네버랜드의 피터팬처럼.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는 생활방식,
'네버랜드 신드롬'을 소개한다.

네버랜드의 세 가지 법칙

2023년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내년을 전망하는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출간했다.
그중 하나가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젊은 인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이보다 더 어리고
개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종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용어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는 'Return'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으로
유아용 공주풍 액세서리, 포켓몬 빵
띠부띠부 싹 등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상품을 구매한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드는 것을 거부하는 'Stay'다.
어려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사회
진출을 늦추고자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결혼을 미룬다.
마지막은 'Play'로 명랑골프, 무지출
챌린지 등 어린이가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즐긴다.



어려진 사회와 네버랜드의 이면

이전까지의 한국사회는 연령대에 따른
성숙한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을 하나의 미덕처럼 여긴다.
'네버랜드 신드롬'이 퍼져가는 것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렀고,
50세는 고작 인생의 절반에 불과하다.
청년 이행기, 청년, 중년, 연소 노인, 고령
노인 등 생애주기가 다양하고 새롭게
정의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전형적인 어른의 삶은 실종됐다.
사회활동에서 은퇴하는 노년기는 줄고
일하고 즐기는 청년기가 늘어났다.
다만 번치 않고 젊어 보인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같은 특성만 따라간다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자기중심적 주장만 강요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현실의 상황을
쉽게 회피하게 된다.

젊음의 활기와 노년의 지혜

네버랜드 신드롬은 불안이 팽배한 사회
현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재미,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한다.
또한 세상이 규정한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된다.
청년의 활기를 극대화하면서 유아적
미성숙의 징후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이 네버랜드라면 좋겠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는 피터팬이다.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면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는 젊음의 활기를
잃지 않으면서 경험의 지혜를 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네버랜드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그 노력에 달려 있다.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을 피해라!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

보일러를 이용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한국은 겨울이면 난방비 폭탄 위기에 처한 이들의 곡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진다. 거대해진 난방비로부터 지갑을 위협받고 있다면 주목하자. 난방비 절약법으로 저렴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0℃로 온도를 1℃ 낮추면 최대 7%의 난방비가 절약된다. 춥다고 난방 온도를 무턱대고 올리지 말고, 다음 방법을 참고하여 새는 열을 잡아 난방비를 절약해보자.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

난방비 절약에는 습도의 비율도 중요하다.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60%로 면역력을 유지하고 곰팡이 번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습도다.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환기를 통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TIP

난방비 절약? 5가지 방법으로 해결 완료!



첫째, 새어나가는 '열' 막기

창문엔 커튼과 북북이를, 바닥엔 카펫을 깔아 외부에서 스며드는 찬 공기를 막아준다. 바깥의 찬 공기가 차단되는 동시에 난방 후 잔열이 보존되는 효과가 있어 실내 온도가 약 1~2℃ 상승한다. 특히 따뜻한 소재의 카펫을 거실에 넓게 깔아주면 바닥의 냉기를 효과적으로 잡아준다.



둘째, '적정 온도' 설정하기

보일러 가동을 시작할 때 높은 온도로 설정하여 바닥을 빠르게 데운 후, 서서히 온도를 낮춰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낮은 온도로 난방을 하면 따뜻해지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다.



셋째, '외출 시' 온도 낮추기

2~3시간 정도 짧게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2~3℃ 정도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낮아진 온도를 다시 높일 때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외출 모드로 설정해놓아야 추후 보일러 가동 시 집안의 온기를 채울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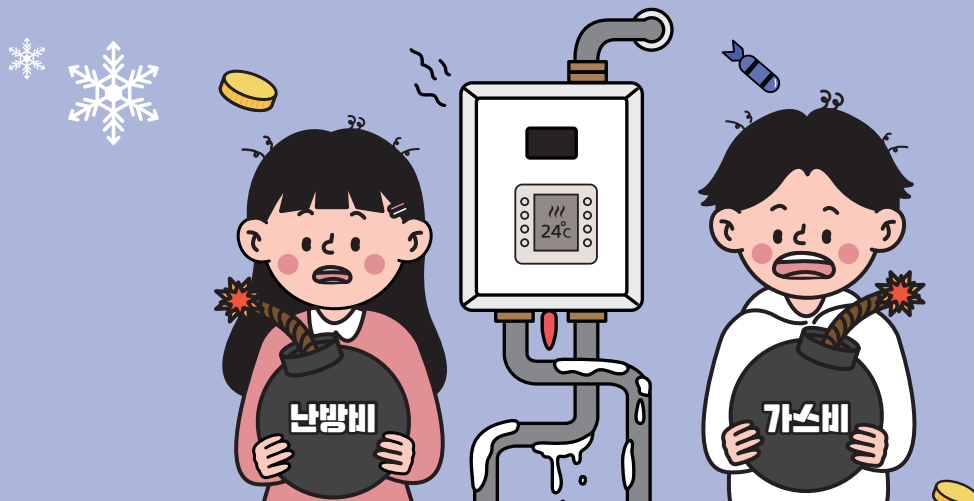
넷째, '보일러 점검'하기

보일러 배관에 오염물이 쌓이거나 누수가 있으면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하고, 배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전기 난방 기구' 사용 줄이기

집에서 온풍기, 전기난로 등 전기로 된 난방 기구를 사용하면 엄청난 전력 소비로 난방비 폭탄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는 보조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등 사용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전기용품 구입 시엔 제품에 명시된 전기 요금, 전기 효율 등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자.



정부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정 부 합 동 민 원 센 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민원의 종류나 처리기관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민원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01 | 방문상담

상담 신청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방문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시 민원으로 접수하여 소관기관 이송
방문 주소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02 | 예약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 예약 신청(www.counseling.go.kr)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전 조사	사실관계 사전 조사
센터 방문	예약일시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시 민원으로 접수하여 소관기관 이송

03 | 온라인 상담

상담 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실 확인·자료 조사	상담 내용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확인	'국민신문고'에서 결과 확인

04 |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365일 24시간
국민콜 110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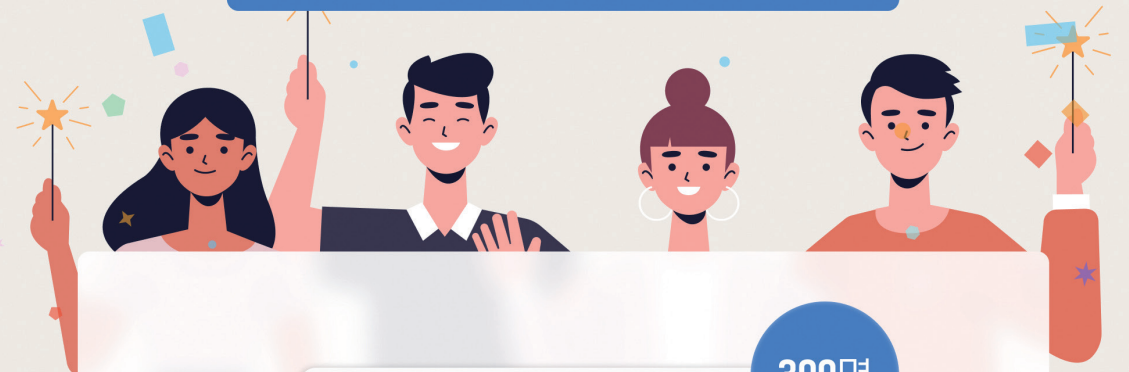
국민생각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국민패널을 소개해주세요.

국민패널 지인찬스 이벤트

기간 2023. 1. 4.(수) - 2. 27.(월) 국민권익의 날



Mobile Coupon

~~₩~~ 10,000
모바일 상품권

Mobile Coupon 10,000 Won

300명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를 추천인으로 기재하면
최다 추천인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드려요.

① 신규 가입자도 가입하는 순간,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추천인 자격이 생깁니다.

응모(참여) 방법

1. 지인에게 국민생각함 국민패널을 소개합니다.
2. 소개받은 분이 국민패널에 신규 가입하면서 추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응모 완료

폴 칠하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국민권익

2022 WINTER VOL.75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WINTER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5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22년 겨울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 ● ●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국민권익소식지